CES 2023을 통해 본 주요 시사점

김종훈 KICT 도로교통연구본부 수석연구원

들어가며

해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Consumer Electronic Show)'는 스페인 MWC, 독일 IFA와 함께 세계 3대 ICT 전시회로 기술 발전의 글로벌 잣대가 되고 있다. 이는 100여 개국 2천여 개가 넘는 세계 전자업체들이 첨단 전자제품을 선보이고 있어 가전업계의 동향을 가장 선명하게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 기업들은 CES를 통해 기술의 진보와 미래가치 등 자사가 기술 발전의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고 'CE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펼쳐진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BE IN IT!, 거대한 혁신의 흐름에 동참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었으며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이 중요함을 선언하며 기술의 발전을 요구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거대한 혁신의 흐름을 관통하는 'CES 2023'에 대해 시사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CES 2023 행사 개요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화되어 약12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테마로는 ① 모빌리티 ② 웹3.0/메타버스 ③ 디지털헬스 ④ 지속가능성 ⑤ 인간 안보이며, 주요 트렌드로는 ① 디지털 전환 ②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③ 연결성 ④ 사용 편의 ⑤ 미래 활용 기술 가능성 등으로 요약된다.

주요 시사점

주목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 함께 살펴볼 주요 시사점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기조연설

기조연설은 CES 메인 이벤트 중 하나로 글로벌 IT업계를

구분	내용
일시	2023년 1월 5일(목) ~ 8일(일)
장소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Tech East, Tech West, Tech South)
주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
전시장 규모	18.6만㎡ (+40~50% YoY)
참가국	174개국 (미국 이외 국가의 등록객 비중 35%)
참가 기업	약 2,400여 개 (+70% YoY) Fortune Global 500대 기업 중 323개 기업 참여 국내 주요 기업으로는 삼성, SK, LG, 롯데, HD현대 등 참여
참관객 수	약 12만 명(등록자 중 60% 이상이 Senior-Level 이상)

표 1 행사의 전반적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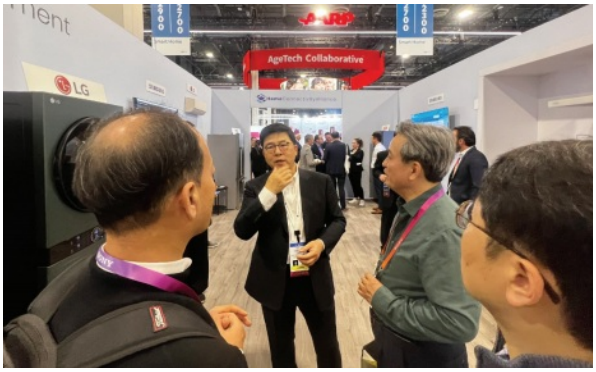

그림 1 HCA 부스 및 시연 장면

그림 2 기업 소개 및 시연 장면

이끄는 기업 인사들이 비전을 제시한다. 역대 기조연설 특징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미국 테크기업 위주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2008년에는 자동차 기업 최초로 GM, 2010년에는 중국기업 최초로 하이센스, 2020년에는 항공사 최초로 델타항공이 연단에 올랐다. 올해는 반도체 기업인 AMD와 농기계 기업 존디어, 항공사 델타항공 외 완성차 기업 BMW 및 스텔란티스 등 모빌리티 관련 기업 리더의 발표가 주를 이루었다. 특별히 인텔이 아닌 AMD 발표의 의미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모빌리티 등 타 업종과의 융합 트렌드가 강화될 것을 상징했다. 이는 오늘 우리 또한 통섭형 융합을 중심에 두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준다.

(2) 제조사 간 장벽을 허무는 HCA(Home Connectivity Alliance)

삼성전자와 LG전자는 HCA 표준 1.0이 적용된 '스마트싱스(SmartThings)' 앱을 통해서 15개 글로벌 가전 브랜드의 모든 제품을 연결 및 제어 · 관리가 가능함을 시연하였다.

기존 자사의 기기끼리만 연동하던 폐쇄성을 벗어나 새로운 스마트홈 생태계 전망을 기대하게 해주었다. 삼성과 LG 외에 GE · 하이얼 · 일렉트로룩스 · 아르첼릭 · 트레인 등 글로벌 가전업체들과 공조 전문 기업들이 참여했다. 시작 당시 13개의 회원사에서 현재는 15개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스마트싱스 앱 가입자는 2억 5천 명 이상이다. 연결된 기기는 1억 800만 대 이상이라고 한다. 이는 배타적 경쟁은 No, 선의의 경쟁은 Yes!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 여겨진다.

(3) KICT 기술이전 중소기업의 CES 및 해외 진출

KICT 패밀리 기업인 ㈜다리소프트社는 2020년 설립 및 기술이전 받은 후 AI 기반의 A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도로 위험정보 제공서비스 상용화를 성공시켰다.

2022년 말 총 55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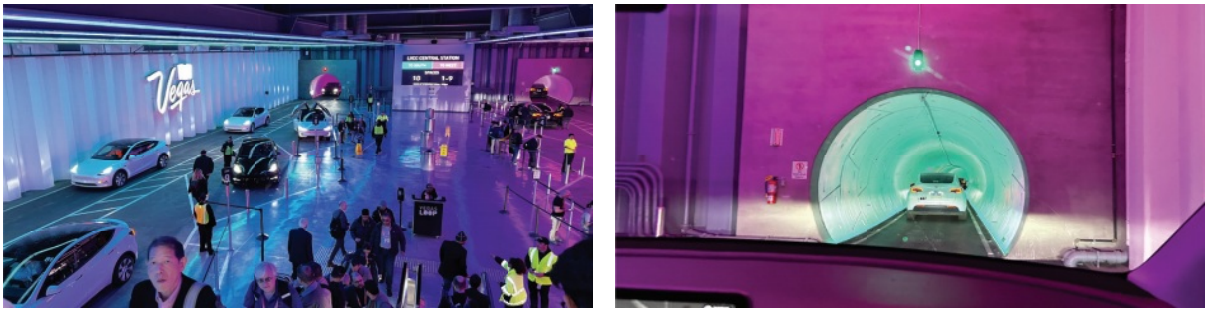

그림 3 테슬라 베이거스 루프

그림 4 현장 체험 모습(좌) 및 전자 기업(BOSCH)의 전시

했으며, 이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사례로 함께 힘을 내고자 제시하였다. 아울러 건설연과 국가 R&D를 함께하고 있는 ㈜에이모社는 'AIMMO ADaaS' 오픈 베타서비스를 처음 선보이는 등 자율주행 AI 모델 개발에 활용되는 데이터 전주기 통합 관리시스템을 공개하였고,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솔루션 전문 기업인 ㈜MORAI社는 우리를 부스에 초대하여 'MORAI SIM'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소개하며 앞으로 건설연과 협업하며 디지털트윈 기반의 다양한 기술과 접목/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CES 2023에서의 경험

언론으로만 봤던 테슬라 베이거스 루프(Vegas Loop) 시승을 해보았다. 테슬라 차량과 Urban Loop 개념을 접목한 교통수단으로, 컨벤션 단지 내 지하도로를 통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속 약 30마일(mi)의 막힘없는 지하 교통망 구축을 컨셉으로 하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자율주행이 아니며 이동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접한 특이한 점은 메타버스와 함께 XR(확장 현실)을 활용한 Digital Reality가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AR업체인 Vuzix는, Vuzix Shield AR기기를 통해 오토바이 각 부품의 상태를 AR안경으로 체크하며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과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재가동하는 방법을 시현했다. 또한 의료기기에서도 수술을 집행하는 의사가 AR 안경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R이 활용되는 사례 및 제품을 선보였다. 이는 게임을 넘어 레저, 안전, 정비,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성을 기대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BOSCH 등 전자기술 중심의 기업들이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보였다. 특히 Sony가 HW와 SW의 결합을 잘 구현하였는데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게임, 영화) 사업과의 시너지가 매우 돋보였다. 또한 Sony Honda의 콘셉트카 'AFEELA'에는 플레이스테이션5를 탑재할 예정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기존의 자동차 업계 중심이 아니라 전자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좋은 사례라 여겨진다. K